경기 침체에도 잘 나가는 SUV… 쏘렌토 2.7만대 팔려 1위

하이브리드 라인업 확보 등 증가세
1분기, 2위 싼타페 2.3만대 판매고
캠핑·차박 등에 준중형 車 수요↑

기아 더 뉴 쏘렌토 하이브리드.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에도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중형급 이상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의 인기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선호도가 높은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확보한 SUV의 판매량은 꾸준히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판매량이 늘었던 경차는 좀처럼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2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모델은 기아의 중형 SUV 쏘렌토로 2만6929대를 기록하며 1위에 이름을 올렸다. 2위는 싼타페로 2만3313대의 판매고를 올렸다.

특히 쏘렌토와 싼타페 모두 중형 SUV지만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추가하며 판매량을 극대화하고 있다. 실제 올해 1분기 기아에서 가장 많이 팔린 하이브리드 모델은 쏘렌토(1만9729대)로 나타났다. 현대차에서는 싼타페 하이브리드(1만5981대)가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지엠은 지난달 내수 시장에서는 전년 대비 20% 증가한 2038대를 판매했다. 이중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가 1485대 판매되며 실적 상승세를 견인했다. 특히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1분기 5178대 판매랴을 기록하며 한국지엠의 판매량(1분기 전체 6919대)을 견인하고 있다.

현대차 5세대 신형 싼타페 전측면.

KGM는 중형 전기 SUV '토레스 EVX'로 해외 시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KGM은 지난달 내수 시장에서 전년 대비 47.2% 감소했지만 수출은 전년 대비 25.7% 증가하며 선방했다. 이같은 상승세는 토레스 EVX 흥행이 주효했다. 수출의 경우 토레스 EVX와 렉스턴 스포츠&칸 등을 중심으로 튀르키예, 호주, 영국 등에서 올해 1월 이후 3개월 연속 판매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KGM 관계자는 "토레스 EVX 글로벌 출시 확대 등 수출 물량 증가에 힘입어 2023년 8월 이후 7개월 만에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판매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경차 판매량은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경차 판매량은 국내 대표 모델인 캐스퍼가 4만5451대로 5.3%, 기아 모닝이 2만5879대로 11.9% 감소했다. 올해 1~2월에도 국내 완성차 업계 경차 판매량은 1만7298대에 그치며 전년 대비 30%가량 감소했다.

업계 관계자는 "캠핑이나 차박 등 레저 활동을 즐기는 수요층이 증가하면 경차를 선호하지 않는 정서가 확대되고 있다"며 "최근 출시되는 준중형 차량들의 경쟁력도 시장 변화에 한몫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세계 휩쓴 현대차그룹, E-GMP 기술력 주목

기아 EV9, 올해의 자동차·전기차 수상
현대차, 아이오닉5 N 고성능차 선정

현대차 아이오닉5.

대한민국 전기차의 대표 주자인 현대자동차그룹이 세계 시장에서 품질을 인정받으며 위상을 높이고 있다.

2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지난 3월 27일(현지시간) 열린 2024 월드카 어워즈에서 기아 EV9은 세계 올해의 자동차와 세계 올해의 전기차에 선정됐다. 현대차 아이오닉5 N은 세계 올해의 고성능차로 뽑혔다.

2022년 현대차 아이오닉5, 2023년 현대차 아이오닉6, 2024년 기아 EV9 등 3년 연속 세계 올해의 자동차·전기차에 오르게 됐다. 현대차그룹이 지난 2020년 선보인 전용 전기차 플랫폼 E-GMP 기반모델이 세계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는 것이다.

2020년 기아 텔루라이드를 포함하면 총 4번에 걸쳐 세계 올해의 자동차에 선정됐다. 지난 10년간 전 세계 자동차 그룹을 통틀어 가장 많은 올해의 차를 배출한 회사로 자리잡았다.

같은 기간 월드 카 어워즈와 함께 세계 3대 올해의 차로 불리는 '북미 올해의 차'와 '유럽 올해의 차'를 포함해 영국, 독일, 캐나다 등 영향력 있는 6개의 올해의 차로 범위를 넓혀도 현대차그룹은 총 274개의 상 중에서 2위 폭스바겐그룹 33개의 두 배수인 66개를 수상하며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

브랜드별 집계를 따져도 현대차 28개, 기아 27개로 나란히 1·2위를 차지했다. 3위 마쓰다(19개), 4위 폭스바겐(17개), 5위 혼다(16개)를 여유 있게 따돌렸다.

현대차그룹의 럭셔리 브랜드 제네시스도 현재 판매 중인 모든 모델이 1회 이상 상을 받아, BMW, 포르쉐, 벤츠와 함께 공동 10위에 올랐다. 특히 아이오닉5는 최근 10년간 6개 올해의 차 시상 역사에서 가장 많은 상을 받은 자동차로 기록됐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올해 2분기 기아 오토랜드 광명 전기차 전용공장을 완공하고, EV3 생산에 돌입한다.

현대차그룹은 앞으로 미국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기아 오토랜드 화성 전기차 전용공장, 현대차 울산 전기차 전용공장을 순차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 기반 전기차의 우수성을 세계 각국에서 인정받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신규 전기차 전용공장과 혁신적인 차세대 전기차를 글로벌 시장에 선보이며, 2030년 전기차 글로벌 톱3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SKB, 인기 웹툰 원작 애니 5편 B tv서 공개

'웹툰 애니가 되다' 메뉴서 시청

SK브로드밴드 모델이 B tv를 통해 K-웹툰을 원작으로 한 애니메이션 5편을 시청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

SK브로드밴드는 인기 K-웹툰을 원작으로 한 애니메이션 5편을 IPTV 업계 최초로 서비스한다고 2일 밝혔다.

이날 공개되는 애니메이션은 ▲누적 조회 수 1600만 이상을 기록한 웹소설 원작의 '말단 병사에서 군주까지' ▲캠퍼스를 배경으로 로맨스 코미디를 그린 '너와 나의 눈높이' ▲뱀파이어와 여고생의 사랑을 소재로 한 '달달한 그녀' ▲영혼 체인지 정치 스릴러 스토리인 '니브' ▲누적 조회 수 2400만 이상에 달한 히트작 '매의 검' 최수정 작가의 '화화원행기' 등이다. 해당 작품들은 B tv와 모바일 B tv 애니메이션 홈의 'K-웹툰 애니가 되다' 메뉴에서 시청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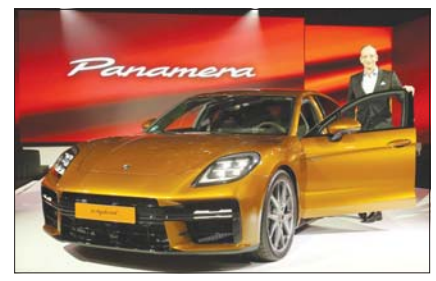
특히 SK브로드밴드는 이번 서비스에 웹툰 기반으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투니모션의 '디지털 컷아웃' 기법을 도입했다. 정지된 이미지를 애니메이션화 하는데 중요한 이 기법은 보다 다양하고 차별화된 애니메이션 콘텐츠를 공급하기 위한 핵심요소다.

그동안 SK브로드밴드는 '미라큘러스: 레이디버그와 블랙캣' '뽀롱뽀롱 뽀로로' 등 60여편 애니메이션 제작에 참여해 고객의 눈높이, 재미와 유익함을 동시에 추구하는 애니메이션 콘텐츠 강자로 입지를 다져왔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포르쉐, 7년만에 '3세대 파나메라' 등장

"세단·스포츠카 기능 결합된 모델"



홀가 게어만 포르쉐코리아 대표가 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파나메라 터보 E-하이브리드'를 선보이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포르쉐코리아가 7년 만에 새로운 파나메라 모델을 출시했다.

2017년 2세대 파나메라를 한국에 선보인 이후 처음 출시하는 3세대 모델이다. 최근 국내 시장에서 수입차가 고전하는 가운데, 3세대 파나메라가 반전을 몰고올 지 주목된다.

포르쉐코리아는 2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출시 행사를 열고, 3세대 파나메라를 국내에서 출시한다고 밝혔다. 포르쉐코리아 측은 파나메라4와 파나메라 터보 E-하이브리드를 시작으로 연내 파나메라 4E-하이브리드도 선보인다.

홀가 게어만 포르쉐코리아 대표는 "3세대 파나메라는 국내 럭셔리 클래스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낼 것"이라고 말했다.

토마스 프리무스 포르쉐 AG 파나메라 제품 라인 총괄 사장은 "파나메라는 세단의 고급스러움과 스포츠카 기능이 결합된 모델"이라며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포르쉐 모델이 될 것"이라고 했다.

파나메라4는 최고 출력 360마력, 최대 토크는 51kg.m를 발휘한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 도달까지 5초가 걸린다.

파나메라 터보 E-하이브리드는 파나메라에서 선보이는 네 번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다. 새롭게 개발된 190마력의 전기모터와 함께 총 680마력의 시스템 출력을 보여준다. 시스템 토크는 94.9kg.m를 갖췄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까지 가속하는 시간은 3.2초에 불과하다.

파나메라 특유의 라인을 유지하면서 인상적이고 스포티한 외관 디자인을 잘 살렸다는 평가다.

/양성운 기자

한화오션, LNG선 4척 1.2조 수주 성과

한화오션이 고부가가치 선박인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4척의 건조계약을 체결하며 1조2000억원이 넘는 수주 성과를 올렸다.

한화오션은 최근 아시아지역 선주로부터 LNG 운반선 4척을 1조2391억원에 수주했다고 2일 공시했다. 이로써 한화오션은 올해 들어 현재까지 LNG 운반선 12척,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2척, 암모니아 운반선 2척을 계약해 32억7000만달러(한화 약 4조 4226억원) 상당의 수주 실적을 기록했다.

한화오션은 구체적으로 이번 계약 발주처에 대해 공개하지 않았지만 카타르 2차 프로젝트로 추정된다.

/양성운 기자